통합특별시장 5명·교육감 4명 등록… 본선 '정조준'

민형배·이정현·이종욱·강은미·김광만 경쟁
첫 초광역 단일 선거구… 표심 잡기 본격화
강숙영·김대중·이정선·장관호… 의혹 공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1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왼쪽부터) 장관호·김대중·강숙영·이정선 후보가 등록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통합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통과 이후 치러지는 사상 첫 초광역 단일 선거구 선거로, 국가균형 발전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진보당 이종욱 후보, 정의당 강은민 후보, 무소속 김광만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쳐다.

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민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역사적 선거"라며 "지난 80년 동안 광주와 전남 시민들이 감내해 온 서러운 역사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의 지역 주도 성장을 전남광주에서 앞장서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나서는 야권 출마자들도 일제히 후보 등록을 한 뒤 승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30%만 믿어주셔도 큰 은혜가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 정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진보당이 강해져야 민주당도 더 발전할 수 있다"며 "RE100 반도체 산업과 첨단 제조업을 유치해 광주·전남이 함께 성장하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못했던 여성과 장애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광주를 만들고 싶다"며 "모든 시민이 상생하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32년간 민주당에 맡겨진 광주와 전남은 쇠퇴했다"며 "민주당 간판만 달면 당선된다는 정치 문화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교육감 선거에 나선 강숙영·김대중·이정선·장관호 후보 등 4명의 후보도 이날 일제히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강숙영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다.

강숙영 후보는 "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후보는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배움과 일자리가 연결되는 교육특별시 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후보는 "기초학력 강화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며 "전남광주를 세계적 수준의 교육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장관호 후보는 "이번 선거는 지역 교육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교육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 첫날부터 김대중 후보의 카지노 도박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정선 후보 측은 김대중 후보의 해외 카지노 방문 의혹에 이어 강원 정선 카지노 출입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하며 후보 공동 참여 방식의 '합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또 공개토론 요구에 김 후보 측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침묵은 의혹을 키우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대중·강숙영 후보는 이날 '클린 정책선거 공동협약서'를 발표하고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중단, 정책 중심 선거를 약속했다. 두 후보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와 비방이 교육감 선거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책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보 등록은 15일까지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6월2일까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실시되며 본투표는 6월3일 치러진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도선관위, 근로자 투표권 보장 현장 점검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기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권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전남선관위는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인 29일부터 30일, 선거일인 6월 3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주의 사전 안내 의무도 명확히 했다.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 사이인 5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근로자가 해당 권리를 인지하지 못해 투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무원과 학생,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투표를 위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투표 참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의미다.

전남선관위는 이달 초 전남도청과 전남도교육청 등 주요 기관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산하 기관과 단체까지 포함해 소속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호 교육위원장, 전남광주서 '독서도시' 선언

민형배 후보와 정책 협약…순천·장성서도 정책간담회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이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독서도시 선언과 지역 산학협력 현장 점검을 위해 광주와 전남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1박 2일 일정에 돌입했다.

참배 뒤에는 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캠프를 찾아 독서도시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전남광주만의 독서 도시 모델인 '시민문학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역 독서 생태계 기반 조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 민주당 신수정 광주 북구청장 후보와 정책간담회도 진행했다. 40만 북구민들을 위한 독서마을 생태계 조성, 조기 독서 실현, 독서 가정 지원사업 등 독서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구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산학협력 현장 점검도 이어갔다. 전남대학교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진 그는 이근배 총장과 관련 학과 교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첨단캠퍼스도 방문, 지방대학 지원 방안과 브랜드 거점대학 선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15일부터 전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를 만나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갖고 다양한 정책 제안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부친 고(故) 김상현 의원의 고향인 장성군에서는 김한종 후보와 함께 장성만의 독서 정책을 토의하며 평생학습도시와 독서도시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김영호 위원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신간 '교육을 반대합니다'를 출간, 독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인 '독서국가론'을 제시하며 전국을 돌며 독서도시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

"호남정치에 진보날개 달자"
진보당 출마자들, 필승 다짐

전남광주 진보당 후보들이 6·3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진보당 후보들은 14일 광주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20만 전남광주 특별시민들의 기대와 3만5000당원의 염원을 안고 총 68명의 후보가 출마한다"며 "민주의 날개에 튼튼한 진보의 날개를 더해 호남 정치의 대도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전종덕 국회의원, 전주연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 및 전남광주 후보자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진보와 민주의 호남양날개 정치'란 슬로건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당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지방자치 혁명도 예고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6·3 지방선거 브리핑

박병규 "정책·비전으로 평가 받겠다"

후보 등록… 민생현장 중심 소통 행보 돌입

더불어민주당 박병규 광산구청장 후보가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태세에 들어갔다.

박병규 후보는 이날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광산구청장 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박 후보는 "지난 민선 8기 동안 시민과 함께 만든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크고 더 강한 광산의 미래를 완성하겠다"며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광산은 광주의 산업과 경제, 청년과 미래를 이끄는 핵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4년은 단순한 행정의 연장이 아니라, 광산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규 후보는 "정치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이어야 한다"며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정책 선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후보 등록 후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직접 만나 광산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소통 중심 선거운동'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시윤 후보 사퇴…강성휘 지지 선언

"목포 살릴 준비된 후보… 진정한 리더쉽 갖춰"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후보(사진)가 1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김시윤 무소속 후보가 전격 사퇴와 함께 강성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전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재선거가 아니라 무너진 시정을 정상화하고 목포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선거"라며 "정쟁과 갈등을 끝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는 산업 침체와 청년 유출, 원도심 공동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AI·에너지 산업과 해상풍력, 해양·물류 산업 육성을 통해 목포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시윤 무소속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후보직 사퇴와 함께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강성휘 선거캠프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합류해 선거 지원에 나서기로 한 김시윤 후보는 "지금 목포에 필요한 것은 분열과 정치 싸움이 아니라 목포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된 리더십"이라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무너진 시정을 바로 세우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선거"라며 "오늘부터 강 후보와 함께 새로운 목포 시대를 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정영덕 무소속 출마…김산 후보와 맞대결

2018년 지선부터 '세 번째 대결'

정영덕 전 전남도의원(사진)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안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산 후보와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정 전 도의원은 14일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안의 미래를 열겠다"며 무소속 무안군수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경선을 거쳐 민주당 무안군수 후보로 공천장을 받았으나 비열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공작으로 소명기회도 없이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며 "지난 8년은 저에게 진실을 향한 고통스러운 투쟁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 전 도의원 지난 2018년 민주당 무안군수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미투 건이 불거져 후보 자격을 박탈 당했다.

정 전 도의원은 "저는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고 위기의 무안을 희망의 미래로 이끌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무안은 중대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군 공항 이전 시 소음대책과 개발이익 공유, 인공지능 산업 또는 RE100 첨단산단 조성을 포함한 국가산단 동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도의원의 출마로 민주당 김산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예상됐던 무안군수 선거는 2파전으로 급반전 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